

梅溪 曹偉 流配期 작품에 형상화된 情懷와 그 의미

김진경*

<目次>

- | | |
|--------------------------|-------------------------|
| I. 서론 | 2. 不憂不懼의 氣概와 樂天知命에 |
| II. 당시 政勢와 梅溪 유배의 배경 | 대한 지향 |
| III. 流配期 작품에 형상화된 情懷의 양상 | IV. 梅溪 流配期 작품의 특징과 그 의미 |
| 1. 流配客으로서의 鬱鬱한 感想 | |

<국문 초록>

梅溪 曹偉(1454~1503)는 成宗朝 新進士人의 일원으로서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정치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문장으로 명성을 얻은 인물이다. 그러나 梅溪는 스승인 佔畢齋의 시문집을 撰集했다는 죄목으로 戊午士禍에 연루되어 유배를 당하였고, 유배지에서 憂國衷情에서 비롯한 근심으로 인해 병을 얻어 삶을 마감하였다.

당시 新進士人들에게 있어서 유배는 정치현실에서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좌절된 것이었으므로, 그런 상황에서 창작한 작품 속에는 失意한 개인의 절박한 심회가 오롯이 형상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梅溪가 유배시기에 창작한 작품에 형상화된 情懷를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은 그의 삶의 궤적과 정신 지향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梅溪 曹偉의 삶과 정신 지향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연구

* 고려대학교 강사 / yeshanmoon@hanmail.net

의 일환으로서, 그가 유배시기에 창작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그 속에 담긴 梅溪의 情懷를 면밀하게 究明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梅溪 曹偉의 삶과 정신 지향에 대한 究明을 통해 초기사림과 지식인들의 삶의 궤적과 문학 세계를 보다 精緻하고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梅溪는 5년 정도의 유배기간 동안에 時事에 관한 언급을 자제하며 지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유배 기간 창작한 그의 작품에는 당시 政勢나 世態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보다는 세상과의 강제적인 단절로 인해 생기는 개인의 鬱鬱한 정회를 절실하게 형상화한 것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유배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樂天知命하며 군자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梅溪의 의지를 형상화한 작품들도 아울러 살펴 볼 수 있다. 이렇듯 유배객으로서의 鬱鬱한 情懷를 표출함과 동시에 樂天知命의 삶을 지향했던 점을 통해 유가적 도리의 실천에 충실하고자 했던 梅溪의 유자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梅溪의 유자로서의 삶의 지향을 살필 수 있는 점이 바로 梅溪의 流配期 작품이 지니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추후 심화된 논의를 통해 梅溪의 유배기 작품에 형상화된 정회와 정신 지향이 동시대 다른 新進士人の 그것과 비교하여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지 보다 섬세하게 포착한다면 그의 인간적 면모와 문학 세계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당대 新進士人들의 다양한 면모를 구체적·종합적으로 考究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曹偉, 流配期作品, 戊午士禍, 新進士人, 憂國衷情, 樂天知命

I. 서론

梅溪 曹偉(1454~1503)는 成宗朝 新進士人の 일원으로서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戶曹參判·漢城右尹·同知中樞府事 등의 여러 관직을 역임하며 정치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문장으로 명성을 얻은 인물이다.

梅溪의 뛰어난 학문과 문장에 대해서는 諸賢들의 높은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梅溪의 姊兄이자 스승이었던 佔畢齋 金宗直(1431~1492)은 梅溪와 강론해 보니 마치 막혔던 강물이 터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자신의 스승과 같다고 梅溪의 학문을 인정하였으며,¹⁾ 虛白堂 洪貴達(1438~1504)은 梅溪의 문장을 칭송하면서 “구름을 내뿜고 무지개를 토하는 듯, 그 문체가 만 길이나 빛난다.”²⁾고 하였다. 훗날 尤庵 宋時烈(1607~1689)은 梅溪의 문장과 道學을 평가하여 “餘事로 여겼던 문장은 왕조를 빛내었으며, 經筵에서 經術을 강론하며 스스로 舜임금의 훌륭한 신하였던 夔와 臯陶가 되기를 기약하였다.”³⁾고 하였다. 「戊午黨籍」 金宗直 條 기사에는 佔畢齋의 문인 가운데 金宏弼·鄭汝昌은 道學으로 이름이 높았고, 金駟孫·權五福·曹偉·兪好仁 등은 문장으로 세상에 드러났다고 하였다.⁴⁾ 특히 성종에게 문장으로 인정을 받아 杜詩諺解 편찬사업에 참여하였고, 임금이 관리들에게 보이는 시험에서 여러 차례 장원을 차지한 사실을 통해 梅溪가 학문과 문장으로 남긴 뛰어난 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梅溪는 스승인 佔畢齋의 시문집을 撰集했다는 죄목으로 戊午士禍에 연루되어 유배를 당하였고, 유배지에서 憂國衷情에서 비롯한 근

-
- 1) 鄭澐, 『梅溪集』(민족문화추진회 『韓國文集叢刊』16을 텍스트로 하였다.), 「梅溪曹先生文集序」, p.271, “曾聞佔畢公嘗許先生之學, 有曰, 吾與太虛講論, 若決江河, 太虛眞我師也.”
 - 2) 鄭澐, 『梅溪集』, 「梅溪曹先生文集序」, p.271, “洪虛白嘗稱先生之文曰, 噓雲吐虹, 萬丈文光.”
 - 3) 鄭澐, 『梅溪集』, 「梅溪曹先生文集序」, p.271, “尤庵文正先生論斷先生之文章道學則曰, 餘事文章, 黼黻王朝, 經術論思, 身許夔臯.”
 - 4) 李肯翊, 『練藜室記述』卷6, 「戊午黨籍」, “金宗直, 字季暉, 司藝江湖故人叔滋之子. 號佔畢齋, 善山人. 世祖朝登第【天順三年己卯登科】, 事睿宗成宗, 官至刑曹判書. 諡文簡. 有孝行, 文章高潔, 爲一時儒宗. 喜獎進後學, 多有成就. 鄭汝昌·金宏弼·朴漢柱, 以道學名, 金駟孫·兪好仁·曹偉·李宗準·南孝溫·洪裕孫等, 以文章顯, 其餘指授谿徑成名者, 甚衆. 燕山戊午史禍起時, 公已卒, 禍及泉壤. 有集行于世.”

심으로 인해 병을 얻어 삶을 마감하였다. 梅溪가 생존했던 시기는 勳舊 세력과 士林세력 사이의 대립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때이고, 이 두 세력 사이의 누적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결국 戊午史禍가 일어난 것이다. 당시 新進士人들에게 있어서 유배는 정치현실에서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좌절된 것이었으므로, 그런 상황에서 창작한 작품 속에는 失意한 개인의 절박한 심회가 오롯이 형상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梅溪가 유배시기에 창작한 작품에 형상화된 情懷를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은 그의 삶의 궤적과 정신 지향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다.

그러나 梅溪가 유배지에서 창작한 한시 작품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成宗朝 新進士類의 문학 세계를 논하는 가운데 단편적으로 거론하거나,⁵⁾ 梅溪의 시세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부분으로 살폈을 뿐⁶⁾이다. 이에 본 연구는 梅溪 曹偉의 삶과 정신 지향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그가 유배시기에 창작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그 속에 담긴 梅溪의 情懷를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보다 면밀하게 究明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佔畢齋 門人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梅溪 曹偉의 삶과 정신 지향에 대한 究明을 통해 초기사림과 지식인들의 삶의 궤적과 문학 세계를 보다 精緻하고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15세기 후반 형성된 사림세력은 佔畢齋라는 스승의 파장 안에서 공동의 유대와 지향을 지님과 동시에 각자의 가문과 행력, 그리고 정치적 위치 등에 따라 정신 지향 및 문학 작품의 성향이 달리 나타난다. 근래 진행된 연구에서는 그 보편성 속에 존재하는 개별성에 대해서 보다 精緻하게 밝히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⁷⁾ 이처럼 佔畢

5) 鄭景柱, 『成宗朝 新進士類의 文學世界』, 法仁文化社, 1993.

6) 呂運弼, 「曹偉論」, 『한국한시작가연구3』, 태학사, 1998, pp.331~359.; 李東宰, 『梅溪 曹偉의 삶과 문학』, 보고사, 2004.; 李義康, 「梅溪 曹偉 漢詩의 문예미학적 성취」, 『한문학보』17집, 우리한문학회, 2007, pp.239~274.

齋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문인들의 다양한 면모를 고찰하는 노력을 통해서 당대의 학문과 문학의 다양한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I. 당시 政勢와 梅溪 유배의 배경

戊午士禍는 건국 후 오랜 기간 동안 정치권력과 부를 독점해 온 勳舊 세력과 이들을 견제하려 한 士林세력 사이에 누적된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앙권력집단인 훈구세력이 그들에게 비판적인 신진사류들을 朋黨으로 엮어서 대대적으로 숙청한 사건이다. 그러나 그 직접적인 단서는 『成宗實錄』의 찬수를 위한 史局의 개설에서 비롯하였다. 당시 史局의 당상관이었던李克墩은 자신의 비행을 기록한 金駟孫의 사초를 삭제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김일손이 宮中秘事를 史草화했음을 연산군에게 고하였고, 그에 따라 사림과 인물들을 治罪하기 시작한 것이다. 翰問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의 사초는 단종·세조와 관련된 것으로 세조의 집권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에 관한 것이었다.

문제의 발단이 된 金宗直의 「弔義帝文」은 표면적으로는 項羽에 의해 시해된 楚 義帝를 弔喪한 글이지만, 의제에 단종을, 항우에 세조를 빗대어 세조의 집권이 반인륜적인 것임을 은유한 것이었다. 평소에 估畢齋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니고 있었던 柳子光을 비롯한 훈구세력들은 「弔義帝文」을 사림세력들의 세조의 집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로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估畢齋를 聖德을 기롱하며 불충한 마음으로 세 조정을 섬긴 인물로 규정하고, 그 연루자의 범위를 估畢齋 門人 전체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점필재는 剖棺斬屍되었고, 그의 문인들은 대부분 화를 당하게 되었다.

7)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엮음, 『점필재 김중직과 그의 젊은 제자들』, 지식과 교양, 2011.

결국 戊午士禍는 훈구세력과 사림세력간의 정치적·사상적 갈등과 왕위교체에 따른 사림세력의 위상 약화가 복합되어 표면화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세조의 즉위 과정에서 나타난 훈구세력의 반인륜적, 반윤리적 행위를 사림세력이 문제 삼음으로써 야기된 사건이었으며, 당대 정치현실에서 도덕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림세력의 理想을 연산군이 포용하지 못한 것에서 촉발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估畢齋의 문하에서 공부한 인물들은 주로 성종조의 新進士人으로 무리지어 부를 수 있다. 그들은 비록 정치적으로 권력을 지니지 못했지만 『小學』과 『家禮』의 실천을 강조하며, 형이상학적인 이론으로서의 道보다는 실천 윤리로서의 道를 중요시하였던 무리들이다.⁸⁾ 이러한 신진사류의 일원이었던 김일손은 史草를 통해 세조와 그를 옹립한 훈구대신들의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함을 밝히고, 나아가 왕조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유교적 윤리를 고취하려고 한 것이다.⁹⁾ 이러한 사실은 睡軒 權五福(1467~1498)의 사초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산군 4년 무오(1498) 7월19일

: 金宗直의 「弔義帝文」 등에 대한 權五福의 사초 내용

五福의 史草에 이르기를, “金宗直이 일찍이 「弔義帝文」을 지었는데, 간곡하고 측은하며 침통하였다. 남이 말 못하던 데를 말하였으므로 士林 사이에서 전해 되었다. 식자들은 말하기를 ‘帝服이 九章인데, 지금 七章이라 이른 것은 무슨 까닭이나? 이는 반드시 뜻이 있어 지은 것이다. 世教에 크게 관계되므로 후세에 남겨 둘 만하다.’ 하였고, 또 『靑丘風雅』를 편찬하면서 人物 姓氏 아래에 註하기를, ‘成三問은 李堦 등과 더불어 魯山君을 復位시킬 것을 꾀했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權擘은 世祖를 추대했다’ 하였으니, 直筆이 늙름하여 듣는 자로 하여

8) 鄭景柱는 성종조 신진사류들은 성리학적 윤리의 실천과 정치 이념에 충실함으로써 정치를 개혁하려 했던 실천의지가 강했던 집단이라고 하였다. 앞의 책, pp.52~53

9) 李秉休, 『朝鮮前期 士林派의 現實認識과 對應』, 一潮閣, 1999, p.239. 「弔義帝文」을 사초화한 것은 세조의 집권과 그에 협찬한 훈구파의 행위를 부당화하면서 유교적 의리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로라고 하였다.

금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하였다.¹⁰⁾

梅溪는 佔畢齋의 처남으로서 俞好仁(1445~1494)·金訥(1448~1492) 등과 가장 이른 시기부터 점필재의 문하에 출입하였고, 新進士人의 교유에서 연배가 앞선 부류의 중심인물이었다. 그러므로 梅溪도 金宗直의 문집을 撰集했다는 죄목으로 연루되어 義州로 유배를 가게 된 것이다. 다음의 기사 내용이 이러한 사실을 알려준다.

연산군 4년 무오(1498) 7월17일: 김일손이 밝힌 김종직 제자들의 명단

尹弼商 등이 물으니, 駙孫이 대답하기를, “申從濩는 宗直이 서울에 있을 적에 수업하였고, 曹偉는 宗直의 妻弟로서 젊어서부터 수업하였고, 蔡壽·金詮·崔溥·申用漑·權景裕·李繼孟·李胄·李龜은 製述로 科次받았고, 鄭錫堅·金謙·金訥·表沿沫·俞好仁·鄭汝昌도 역시 모두 수업하였는데, 어느 세월에 수업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李昌臣은 弘文館 교리가 되었을 적에 종직이 應教로 있었는데, 창신이 『史記』의 의심난 곳을 질문하였으며, 康伯珍은 삼촌 조카로서 젊었을 적부터 수업하였고, 柳順汀은 韓愈의 문장을 배웠고, 權五福은 宗直이 同知成均館事로 있을 때에 成均館에서 공부하였고, 朴漢柱는 慶尙道 儒生으로서 수업하였고, 金宏弼은 종직이 居喪할 때에 수업했습니다. 그 나머지도 오히려 많다고 한 것은, 李承彦·郭承華·莊子健 등입니다.” 하였다.¹¹⁾

다음은 戊午士禍가 발생한 후 梅溪가 義州로 유배가기까지의 과정을

- 10)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4年(1498) 7月 19日, “五福史草云, 金宗直嘗著甲義帝文, 懇惻沈痛, 道人所不道處, 士林傳誦. 識者曰, ‘帝服九章, 而今云七章, 何也? 此必有爲而作. 大關世教, 可垂不朽.’ 又撰青丘風雅, 註人物姓氏下曰, ‘成三問與李塏等, 謀復魯山.’ 曰, ‘權學推戴世廟’, 直筆凜然, 聞者起敬.”
- 11)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4年(1498) 7月 17日, “弼商等問之, 駙孫對曰, 申從濩, 宗直在京時受業; 曹偉, 以宗直妻弟, 自少受業; 蔡壽·金詮·崔溥·申用漑·權景裕·李繼孟·李胄·李龜, 製述科次; 鄭錫堅·金謙·金訥·表沿沫·俞好仁·鄭汝昌, 亦皆受業, 其歲月則不知; 李昌臣爲弘文校理, 宗直時爲應教, 昌臣以史記質疑; 康伯珍, 以三寸姪, 自少受業; 柳順汀受韓文; 權五福, 則宗直同知成均時居館; 朴漢柱, 以慶尙道儒生受業; 金宏弼, 宗直遭喪時受業. 所謂其餘尙多者, 李承彦·郭承華·莊子健等也.”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 기록이다.

홍치 11년 【연산군 4년】 무오년(1498) 공의 나이 45세.

7월 賊臣 柳子光이 사옥을 일으켜 估畢齋 공의 弔義帝文에 반역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다. 연산군은 항상 士類를 미워하고 있었는데 참조하는 말을 듣고는 크게 기뻐하며 估畢齋 공을 大逆으로 논죄하여 부관참시를 명하고, 金駟孫 등은 극형에 처하니 한 시대의 명사들이 모두 黨綱의 화를 당하다. 당시 공은 북경에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연산군은 압록강을 건너오자마자 처형하도록 명하다. 8월15일 공이 요동에 도착하여 이 소식을 비로소 듣다. 26일 압록강에 이르러 金吾郎이 와서 기다리는 것을 멀리 바라보고 일행이 모두 두려워하였지만 공만이 홀로 안색이 변하지 않다. 강을 건너자 명이 바뀌어 잡아 오라는 명이 다시 내리다. 9월9일 서울에 들어가 하옥되다. 17일 판결이 나서 23일 義州로 귀양길을 떠나다.¹²⁾

연산군 4년 무오(1498) 9월 9일

: 金宗直의 문집을 중국에 가지고 간 曹偉 등의 처벌에 대해 의논하고 의주로 정배시키다

推官이 아뢰기를, “曹偉가 이미 宗直의 문집을 편찬하였으며, 그가 중국에 갈 적에 또 그것을 가지고 갔사온데, 전일의 供招에 「弔義帝文 과 「述酒詩」의 辭意를 알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駟孫의 말에 ‘曹偉와 같이 상의하여 편찬했다.’ 하는데, 曹偉는 부인하였습니다. 權景裕도 ‘曹偉가 문집을 발간하려고 원고를 신에게 부탁해서 초해서 내게 하였다.’ 하는데, 曹偉는 또 부인하옵니다. 駟孫은 또 ‘曹偉는 젊어서부터 어른이 되도록 종직에게 수업을 했다.’ 하는데, 曹偉는 ‘단지 『禮記』만을 배웠으나, 그것도 졸업은 못했다.’고 말하오니 이는 거짓입니다. 청컨대 刑訊하옵소서.”하였다. 刑訊하였으나 曹偉는 이에 불복하고 감옥 안에서 上書하여 스스로 해명하였다. 왕이 弼商 등에게 묻기를, “宗直의 글

12) 曹伸, 『梅溪集』, 「梅溪先生年譜」, p.277, “弘治十一年【我燕山四年】戊午, 公四十五歲. 七月, 賊臣子光起史獄, 以畢齋弔義帝文, 爲有亂逆之意. 燕山常憤士類, 既聞讒舌, 大喜, 畢齋論以大逆, 卽令剖棺, 金駟孫等, 置極刑, 一時名流, 盡被黨綱. 時公朝天未還, 燕山命越江時卽處斬之. 八月十五日, 公到遼東, 始聞之. 廿六日, 到鴨江, 望見金吾郎來候, 一行皆懼, 公獨顏色不變. 及渡, 更有拿命. 九月九日, 入京逮獄. 十七日, 決罪, 二十日, 發謫義州.”

을 曹偉가 어찌 알지 못했겠느냐?”하자, 모두 아뢰기를, “曹偉가 학문이 있으므로 알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刑訊할 것을 청했던 것이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그 죄가 駙孫과 더불어 누가 중하냐?”하니, 弼商 등이 아뢰기를, “현재 실정은 알아 내지 못하여 감히 억측할 수 없사옵니다.”하였다. 드디어 형장 심문을 한 차례 하고, 전교하기를, “만약 죽을 죄가 아니라면 형장 아래에서 운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하였다. 弼商 등이 아뢰기를, “曹偉가 만약 그 情狀을 알았다면 죽어도 죄가 남습니다만, 다만 ‘신이 만약 그 글 뜻을 알았다면 어찌 감히 成宗께 올렸겠습니까.’ 한 것으로 보아 그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하오나 실정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실로 무죄 석방할 수는 없사옵고 다스리지 않는 것도 또한 부당하오니, 청컨대 表沿沫의 예에 의하여 논단하옵소서.”하니, “가하다.”고 전교를 내렸다. 드디어 곤장을 때려 曹偉를 義州로, 鄭承祖를 郭山으로 定配하였다.¹³⁾

전자는 『梅溪集』에 실려 있는 「梅溪先生年譜」의 내용이고, 후자는 『朝鮮王朝實錄』 「燕山君日記」의 기사이다. 梅溪에게 원래 내려졌던 형벌은 金駙孫과 같은 사형이었다. 그러나 문초의 과정을 거쳐서 流配로 바뀌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문초를 당하는 과정에서 梅溪가 「弔義帝文」의 寓意性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한 점과 점필재 문인으로서의 관계에 대해 일정 정도 부인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朝鮮王朝實錄』의 기사는 梅溪의 인물됨과 삶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褒貶은 梅溪가

13)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4年(1498) 9月 9日, “推官啓, ‘曹偉既編次宗直文集, 其赴京師, 又印詩集齎去, 而前招云, 未解「弔義帝文」·「述酒詩」辭意. 駙孫云, 與偉同議編次. 而偉則諱之. 權景裕云, 偉欲刊文集, 以本藁付臣抄出. 而偉又諱之. 駙孫又云, 偉自少至長, 受業於宗直. 而偉則曰, 只受『禮記』, 未卒業. 詐也, 請刑訊.’ 不服, 偉在獄中, 上書自明. 王問弼商等曰, ‘宗直之文, 偉豈不知乎?’ 僉啓曰, ‘偉有學問, 慮或知之, 故敢請刑訊耳.’ 傳曰, ‘其罪與駙孫孰重?’ 弼商等啓, ‘時未得情, 不敢臆料耳.’ 遂刑訊一次, 傳曰, ‘若非死罪, 而殞命杖下, 則不可.’ 弼商等曰, ‘偉若知情, 則死有餘辜矣. 但言臣若知其文義, 則何敢進於成廟? 此言似是. 然斷以知情, 固不可全釋, 不治亦不當, 請依表沿沫例論斷.’ 傳曰, ‘可.’ 遂杖配偉于義州, 鄭承祖于郭山.”

삶 전체를 통해 지냈던 원칙과 당시의 상황논리를 함께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I. 流配期 작품에 형상화된 情懷의 양상

梅溪의 庶弟인 適菴 曹伸(1454~?)이 編次한 「梅溪先生年譜」 가운데 梅溪의 유배시기 관련 기사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홍치 12년 【연산군 5년】 기미년(1499) 공의 나이 46세.

여름 謫所에 작은 정자를 지어 ‘**葵亭**’이라 이름 짓고 記文을 지어 임금을 연모하는 정성을 담다.¹⁴⁾

○ 홍치 13년 【연산군 6년】 경신년(1500) 공의 나이 47세.

여름에 날씨가 가문데도 우레가 쳐서 대궐문 앞에서 사람이 벼락에 맞다. 성상께서 억울한 옥사를 판결하라 명하고, 귀양 간 신하들도 가까이 옮기라는 분부를 내리다. 5월 順天府로 이배되어 西門 밖에 거처를 정하다. 당시 寒暄堂 金宏弼 또한 熙川에서 이곳으로 이배되니 서로 더불어 道義를 강론하다.¹⁵⁾

○ 홍치 14년 【연산군 7년】 신유년(1501) 공의 나이 48세.

순천부 서쪽의 시내에 그 이름이 ‘玉川’으로 물과 바위가 맑고도 아름다우며 오래된 나무들이 비쭉비쭉 서 있는데, 공의 거처와 매우 가까웠다. 드디어 돌을 쌓아 臺를 쌓고서는 ‘臨淸’이라 이름 지어 노니는 곳으로 삼고, 또 기문을 지어 뜻을 드러냈다. 寒暄堂 또한 일찍이 좃아 함께 지내며 학문을 논하다.¹⁶⁾

14) 曹伸, 『梅溪集』, 「梅溪先生年譜」, p.277, “弘治十二年【我燕山五年】己未, 公四十六歲. 夏, 構小亭于謫所, 名曰葵亭, 作其記, 以寓戀闕之誠.”
 15) 曹伸, 『梅溪集』, 「梅溪先生年譜」, p.277, “弘治十三年【我燕山六年】庚申, 公四十七歲. 夏, 天旱而雷, 震人于闕門外, 命決冤獄, 有謫臣量移之命. 五月, 移配于順天府, 僑居西門外. 時寒暄堂金公, 亦自熙川移配于此, 相與講論道義.”
 16) 曹伸, 『梅溪集』, 「梅溪先生年譜」, p.277, “弘治十四年【我燕山七年】辛酉, 公四十八歲. 順天府西有溪, 名玉川, 水石清麗, 老樹槎牙, 距公所居甚近. 遂累石

○ 홍치 15년 【연산군 8년】 임술년(1502) 공의 나이 49세.

공은 귀양에 처해진 이래로 **학문에 전념하여 寢食을 거의 잊고, 오직 간신들이 나라를 그르치는 것을 근심하다.**¹⁷⁾

○ 홍치 16년 【연산군 9년】 계해년(1503) 공의 나이 50세.

國事가 날로 그릇됨을 알고서는 근심걱정이 병이 되어 11월 26일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나다. 寒暄堂 金宏弼이 고을 사람들을 이끌어 예를 갖추어 상례를 치른다. 당시 아우 曹伸은 金山에 있었는데 공의 병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말을 달려갔으나 이미 염이 끝난 뒤였기에 靈柩를 받들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虛白堂 洪貴達에게 墓誌를 청하고 이듬해 3월 마암산 선영의 東峯에 장례지내다. 9월 縉紳의 화가 다시 일어나서 이전의 죄목까지 소급하여 공의 집안 재산을 적몰하다. 11월 禍가 저승에까지 미쳐 마침내 부친의 묘소 아래로 이장하다.¹⁸⁾

이상의 기사 내용을 검토해 보면 梅溪는 유배 기간에도 戀君의 정을 잊지 않았으며, 憂國衷情이 간절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의 문자에 쫓겨 당시에 죄를 얻어 귀양살이 한 이래로, 처와 자식들이 내가 문서를 보거나 붓과 벼루를 가까이 하는 것을 보면 화를 내면서 불태워 버렸다. 나 또한 뜨거운 국물에 입을 데어 놀라 나물도 붙어서 먹는 것처럼 붓을 찾지 않은 것이 몇 년이 되었다.¹⁹⁾”는 언급에서 볼 수 있듯이 유배기간 동안에는 時事에 관한 언급을 자제하며 지내려고 노력한 것으

爲臺, 名之曰臨淸, 以爲遊適之所, 又作記以著之. 金寒暄亦嘗從遊論學.”

- 17) 曹伸, 『梅溪集』, 「梅溪先生年譜」, p.277, “弘治十五年【我燕山八年】 壬戌, 公四十九歲. 公自廢謫以來, 專心於學問, 殆忘寢食, 惟以奸臣誤國爲憂.”
- 18) 曹伸, 『梅溪集』, 「梅溪先生年譜」, p.277, “弘治十六年【我燕山九年】 癸亥, 公五十歲. 知國事日非, 憂悴成疾, 十一月二十六日, 卒于謫所. 金寒暄率邑人, 備禮治喪. 時弟伸在金山, 聞公疾革, 馳進則已斂矣. 奉柩還鄉, 請墓誌於洪虛白, 明年三月日, 葬于馬巖山先壟之東峯. 九月, 縉紳禍再起, 追錄前罪, 籍沒家財. 十一月, 禍及泉壤, 遂改厝于先公墓下.”
- 19) 曹偉, 『梅溪集』 卷4, 「止止堂集序」, p.341, “余方以編人文字, 得罪於時, 竄謫以來, 妻孥見余看文書親筆硯, 則詢罵而焚棄之. 余亦懲羹吹壺, 不探筆者數年.”

로 보인다. 그러므로 유배 기간 창작한 그의 작품에는 당시 政勢나 世態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보다는 세상과의 강제적인 단절로 인해 생기는 개인의 우울한 정회를 절실하게 형상화한 것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1. 流配客으로서의 鬱鬱한 感想

유배로 인해 세상과 단절된 梅溪는 군주에 대한 끝없는 戀慕의 정을 드러내고, 관직생활에 대한 悔恨을 지님과 동시에 관직 복귀를 갈망하였고, 고향과 친지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토로하였다. 순라군의 딱따기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들려오는 눈 내리는 밤, 그런 고요함 속에서 梅溪는 잠 못 이루고 곳곳하게 앉아서 등불의 심지 하나를 다 태우도록 온통 고향 생각뿐이고,²⁰⁾ 小滿을 바로 앞둔 맑고 화창한 계절을 맞이해서도 오직 고향 그리는 시를 읊조리며 간절한 그리움에 괴로워하고 벗과 함께 돌아갈 날만을 헤아리기도 했다.²¹⁾

「守歲次淳夫韻²²⁾」

속박되어 지내는 의주는 강가마저 적막한데
돌아가고픈 마음 밤낮으로 궁궐을 향하네.
한 잔 술은 근심스런 나그네 마음 풀어주고
쏟아진 세월은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네.
소나무 고개의 깊게 쌓인 눈을 근심스레 바라보니
2년 동안 헛되이 서울의 봄을 저버렸네.
뱀 꼬리로 남으려하나 어찌할 수 없음 알겠고

20) 『梅溪集』 卷1, 「龍灣卽事」, p.296, “雪壓深簷夜未央, 寒燈生暈柝聲長. 此時危坐心千里, 爇盡床頭一炷香.”

21) 『梅溪集』 卷3, 「次鄭淳夫韻」, p.322, “已是清和小滿前, 可堪花落更啼鶯. 高低麥隴風搖浪, 寂歷茅齋日抵年. 榘熟林鳩頻喚雨, 雲閑野鶴正盤天. 越吟方苦鄉心切, 何日騰裝與子旋.”

22) 『梅溪集』 卷3, p.320.

내가 읊는 시 진부하여 부끄럽네.

局促龍灣寂寞濱	歸心日夜向楓宸
杯觴草草聊娛客	歲月駸駸不貸人
萬丈愁看松嶺雪	二年虛負鳳城春
欲留蛇尾知無奈	愧我譚吟語自陳

한 해를 보내는 그믐날 밤을 지새우며 의주로 함께 유배 온 鄭希良의 시에 차운한 작품이다. 유배되어 지내는 곳은 그 어디를 가도 적막하고,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은 한 잔의 술뿐이다. 유배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어도 마음은 한결같이 임금이 계신 궁궐을 향하고 있지만 유배에서 풀려날 길은 보이질 않고,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은 유배객에게 가혹하리만큼 너무도 빨리 지나간다. 하루라도 빨리 解配되어서 비록 용의 머리가 아닌 뱀의 꼬리처럼 미미한 존재일지라도 정치 현실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럴 방법이 없음에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이 시에서 보이는 군주에 대한 그리움과 충심은 유배지에서 지은 정자 이름을 ‘葵亭’이라고 한 것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천하에는 버릴 사물이 없고, 버릴 제주도 없으니, 그 어떤 미물이더라도 옛 사람들은 모두 버릴 수 없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해바라기는 두 가지의 덕을 지니고 있음에랴. 해바라기는 해를 향하여 그 빛을 따라 기울곤 하니, 이를 충성이라 말해도 가할 것이요, 해바라기는 스스로를 보전할 수 있으니, 이를 지혜라 일러도 가할 것이다. 충성과 지혜란 신하의 절개이니, 충성으로써 윗사람을 섬기어 자기의 정성을 다하고, 지혜로써 사물을 변별하여 시비에 의혹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곧 군자가 어려워하는 것이고, 내가 예전부터 연모하던 일이다. 이 두 가지의 아름다움이 있으니 연약하고 평범한 풀이라고 하여 천하게 여길 수 있겠는가. 이로써 논한다면 유독 소나무·대나무·매화·국화·난초만이 귀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지금 내가 비록 귀양살이를 하지만 자고 먹는 것이 임금의 은혜 아님이 없으니, 낮잠 자고 밥 먹는 것 외에는 沈約과 司馬光의 詩를 읊으며 임금을 향하는 마음을 스스로 그만두지 못할 뿐이니, 해바라기로 내

정자의 이름을 지은 것이 어찌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겠는가?²³⁾

소나무·대나무·매화·국화가 아닌 보잘것없는 해바라기로 정자의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한 해명 속에서 이 시절 梅溪의 충심을 엿볼 수 있다. 梅溪가 특히 해바라기에 주목한 것은 햇빛을 따라 기울어 스스로의 뿌리를 보전할 수 있는 속성 때문이다. 해를 따라 기우는 속성에 신하가 군주를 향한 한결같은 충심을, 뿌리를 보전하는 속성에 스스로를 보전할 줄 아는 지혜를 빚대고 그것이 바로 신하로서 갖추어야 할 두 가지 덕목임을 제시한다. 자신의 정성을 다하여 윗사람을 섬기는 ‘忠’과 是非를 의혹됨이 없이 옳게 판단하는 ‘智’는 군자도 온전하게 갖추기 어려운 것으로 梅溪 자신이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평소에 마음에 둔 덕목인 것이다. 지금 비록 귀양살이를 하고 있지만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모두 군주의 은혜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신하로서 갖추어야 할 그 덕목들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늘 염두에 두기 위해서 자신이 거처하는 곳을 ‘葵亭’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다.

이처럼 충심을 견지하고자 한 梅溪였기에 모든 일들이 마음에 뒤엎혀서 불만스럽고, 이리저리 떠다니는 부평초같은 신세이지만 오로지 일편단심으로 군주를 바라볼 뿐이고,²⁴⁾ 봄날 한식날을 맞이해서도 고향과 군주가 계신 궁궐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시름이 깊어만 갈 뿐²⁵⁾이었다.

23) 『梅溪集』 卷4, 「葵亭記」, p.335, “天下無棄物, 無棄才, 管蒯葑菲之微, 古人皆以爲不可棄, 況葵有二德乎. 葵能向日隨陽而傾, 謂之忠, 可也, 葵能衛足, 謂之智, 可也. 夫忠與智, 人臣之節, 忠以事上, 盡己之誠, 智以辨物, 不惑是非, 此君子之所難, 而余之宿昔所慕者也. 有此二美 其可槩之於軟脆之凡卉而賤之哉 由此論之, 不獨松筠梅菊蘭蕙之可貴也, 審矣. 今余雖謫居, 一眠一食, 莫非主恩, 午睡攤飯之餘, 詠休文君實之詩, 向日之心 自不能已已, 則以葵名吾亭, 豈無說乎.”

24) 『梅溪集』 卷3, 「次宋可中留別韻」, p.322, “萬事嬰懷不滿評, 一身南北類浮萍. 片雲孤鶴元無住, 綠水青山自在橫. 只把丹心明皎日, 欲憑黃耳問諸兄. 明朝別後開河隔, 南雁來時一寄聲.”

25) 『梅溪集』 卷3, 「寒食雨次淳夫韻」, p.321, “黃埃如霧晝冥濛, 有底春愁日日濃.

다음의 시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정치현실에 대한 미련이 보다 절실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寄贈從弟存慎三首²⁶⁾」

병든 몸 더욱 수척해 가고
귀밑머리 윤기 잃어 흰 터럭 어지럽네.
나그네 심사는 진정 용만의 달빛에 괴롭고
돌아가는 꿈속에서 자주 조령의 구름 지나네.
젊은 날엔 대궐에서 조서의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늙어선 철마 타고 종군하려 하네.
고향 소식은 지금 어떠한가?
梅兄과 竹君의 안부를 묻네.

病骨崢嶸瘦十分 鬢毛衰颯白紛紛
羈懷正苦龍灣月 歸夢頻過鳥嶺雲
少日金鑾曾視草 老來鐵馬欲從軍
故園消息今何似 爲問梅兄與竹君

당시 咸昌의 현감으로 있는 從弟 曹倜에게 보낸 작품이다. 유배를 오기 전엔 궁궐에서 임금이 내리는 조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정치현실에 참여하여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였지만 지금은 정치현실로부터 단절되어 있어서 그 시절에 대한 미련만이 자꾸 쌓여갈 뿐이다. 그러므로 울울한 심사에 몸은 더욱 수척해지고, 좋은 경물도 위안이 되기보다는 그저 근심을 배가시키는 매개체에 불과한 것이다. 늙어선 철마타고 종군하려고 한다는 내용은 存慎[曹倜]이 梅溪에게 종군이라도 해서 죄를 감면받는 것이 어떻지²⁷⁾ 물어왔기에 언급한 것인데, 梅溪가 현재 놓인 상황의 비참함을 잘

草色漸酣寒食雨，夢魂驚破塞垣鴻。數年丘壟省何晚，千里家山思不窮。紫禁煙花應爛熳，幾時重聽景陽鍾。”

26) 『梅溪集』卷3, p.320.

보여준다. 이처럼 서글픈 상황에 놓여 있기에 梅溪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절실했던 것이다.

다음은 의주에서 순천으로 이배될 때 한강을 건너면서 지은 작품이다.

「南遷過漢江²⁸⁾」

실의에 차 번뇌하며 돌아오는데 하늘은 보이지 않고
종남산은 지척에 있건만 구름과 안개만 보이네.
3년 동안 변방에서 외로운 신하 눈물 흘렸는데
오늘 강가에 서니 더욱 슬프구나.

眊睷歸來不見天 終南咫尺望雲煙
三年塞下孤臣淚 今日江頭倍黯然

그나마 지금 이배되어 가는 곳이 이전의 謫所보다 고향과 가까운 곳이지만 하지만 여전히 囚人의 몸이기에 梅溪의 마음은 괴로울 뿐이다. 게다가 임금의 계신 곳을 가까이 지나가고 있지만 결코 그곳으로 다가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더욱 암울한 것이다. 비슷한 시점에 지어진 다음의 작품에서는 유배당한 지 이미 3년이 지났지만 解配가 아닌 移配의 명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서운함과 괴로운 심회를 보다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將向湖南示同來諸子²⁹⁾」

먼 유람을 왜 굳이 서남쪽을 택했는지
꼭 원숭이들의 朝三暮四 격일세.
압록강의 풍진은 바라볼수록 점점 멀어지고

27) 『梅溪集』 卷3, 「寄贈從弟存慎三首」, p.320, “存慎問余從軍故云.”

28) 『梅溪集』 卷1, p.296.

29) 『梅溪集』 卷3, p.322.

섬진강의 안개 낀 달빛은 꿈속에 가까워지네.
 고향은 아득하고 사람만 헛되이 늙어가니
 덧없는 세상사 나는 감당 못하겠네.
 구양수가 행역에 뜻을 둔 것을 본받고자
 약간의 술기운을 빌어 애써 한 곡조 불러보네.

遠遊何必擇西南	正似群狙賦四三
馬背風塵看漸遠	蟾津煙月夢相參
關山杳杳人空老	世事悠悠我不堪
欲擬歌公志于役	勞歌一曲倚微酣

나라에서는 배려 차원에서 謫所를 남쪽으로 옮겨주는 것이지만 梅溪에게는 그것이 朝三暮四에 불과한 처사로 여겨질 뿐이다. 장소만 달라지는 것이고 자신은 여전히 정치현실과는 격절된 처지이기 때문이다. 3년간 머물던 의주는 점점 멀어지고 앞으로 거처하게 될 순천의 산천은 가까워지나 고향은 여전히 아득하기만 하다. 유배객으로 세월만 헛되이 낭비하고 있고 덧없는 세상일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러므로 좌천되어 간 곳에서 「醉翁亭記」를 짓고 그곳 산수를 즐겼던 구양수를 떠올리며 자신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이다.

「次成安齋重卿任韻三首³⁰⁾」

시절에 느껴 옛날 일들 생각하니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고
 고향의 푸른 봄은 꿈속에서도 생각나네.
 공명을 맞봄은 그림 속 떡과 같으니
 얻고 잃음 잇고서 두다 만 바둑에 마음을 붙이네.
 강은 비난 떠처럼 푸른빛 일렁이고
 산은 긴 눈썹처럼 검푸른 빛 둘러 있네.
 물가의 난초 캐어 허리에 차려하는데

30) 『梅溪集』 卷3, p.321.

벼슬살이가 높은 구름처럼 위태로운지 누가 알겠는가?

感時懷舊不勝悲	故國青春入夢思
染指功名同畫餅	忘懷得失付殘棋
江如羅帶青藍滌	山作脩眉翠黛施
欲採渚蘭紉作佩	誰知曾冠切雲危

한식날 成任의 시에 차운한 작품이다. 유배객에게 있어서 節氣는 나그네로서의 감상을 더욱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는 듯, 한식을 맞이한 梅溪는 향수가 더욱 심해져서 슬픔을 주체할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런 슬픔 속에서 이미 자신에게 있어서 功名이란 그림 속의 떡처럼 부질없는 것이니 현실에서의 이해득실은 모두 잊고 바둑이나 두며 自適하는 삶을 살코자 한다. 이 시기 梅溪는 당대 현실을 제대로 된 쓸모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虛名만을 누리고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였고, 자신은 그 공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존재로서 자괴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³¹⁾ 그러한 심회와 동시에 이 시의 마지막에서처럼 벼슬살이는 매우 위험한 것이니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은 임금에게 버림받은 상황에서 끝까지 자신의 지조를 지켰던 굴원과 같은 삶을 살 것을 희망해 보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에게도 굳이 몸이 편할 곳을 찾지 말 것이니, 정치 현실에선 조금만 발을 잘못 내딛어도 파란이 일어서 곧바로 위험해 질 수 있다고 충고를 하는 것이다.³²⁾ 이처럼 유배시기 동안 梅溪는 정치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또 그런 현실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자신을 질타하면서 내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는다. 그러한 갈등

31) 『梅溪集』卷3, 「次韻答淳夫二首」其一, p.321, “自笑儒酸抵骨清, 寸腸冰蘖鬪崢嶸. 功名不必要三傑, 禮樂終須待兩生. 刻楮成時非實用, 吹竽混處摠虛名. 年來已斷風流夢, 還愧梅花宋廣平.”

32) 『梅溪集』卷3, 「次成安齋重卿任韻三首」其三, p.321, “熟食之辰浪自悲, 松楸萬里入遙思. 半生榮悴頻看鏡, 一世輸贏正類棋. 問舍求田真有策, 論詩說賦竟無施. 君莫覓安身地, 跬步波瀾即是危.”

을 겪는 과정 속에서도 그가 견지하고자 했던 것은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기개를 지니고 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 의지이다.

2. 不憂不懼의 氣概와 樂天知命에 대한 지향

유배시기 동안 당대의 정치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동시에 관직 복귀에의 갈망, 군주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 등으로 끊임없이 갈등하고 번뇌하는 속에서 梅溪가 이상적으로 지향한 것은 ‘仁者不憂, 勇者不懼’의 군자적인 삶이다. 이러한 梅溪의 삶의 지향은 순천으로 이배되어 지낼 때 거처 앞의 누대 이름을 ‘臨淸臺’라고 짓고 쓴 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홀러가는 것은 이와 같도다.’라고 한 것은 공자가 탄식한 것이고, ‘반드시 그 물결치는 지점을 보라.’한 것은 맹자의 가르침이다. 성현이 물가에 임하여 물을 바라봄에는 진실로 뜻을 두는 바가 있다. 도연명의 落鄉의 즐거움은 천명을 알고 즐기는데 있었지 오로지 높은 곳에 올라 노래를 부르거나, 물가에 이르러 시를 읊조리는 것에 있지는 않았다. <중략> 옛날 柳宗元이 零陵에 거처할 때에 산수를 싫어하여 시내의 이름을 愚溪라 하고, 산을 囚山이라고 하여 모두 좋지 않은 이름을 붙였으니, 애초에 天命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蘇軾이 黃岡에서 귀양살이 할 때에 武昌·寒溪의 여러 산을 두루 돌아보고 전후 <赤壁賦>를 지었으니, 이것은 고금에 빼어난 문장이지만 세상을 버리고 신선을 사모한 뜻이 있음을 끝내 면하기 어려웠으니, 또한 天命을 안다고 말하기 어렵다. 오직 군자의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방책을 배우고,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한 호연 지기를 기른 후에 궁궐한 처지에서도 변함이 없을 수 있어야 天命을 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도연명을 사모하고 공자와 맹자를 배운 사람으로서 여기에 뜻을 둔 지 오래되었다. 내가 이 누대에서 즐기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면 천명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³³⁾

33) 『梅溪集』卷4, 「臨淸臺記」, p.337, “逝者如斯夫, 夫子所歎, 必觀其瀾, 鄒國有訓. 聖賢臨流觀水, 其志固有所在, 若淵明歸田之樂, 在於樂天知命, 而不專在

柳宗元과 蘇軾이 유배지에서 자연을 대한 태도를 비교하여 두 사람 모두 제대로 天命을 안 것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柳宗元은 자신의 울울한 심사를 자연에 그대로 투영하여 ‘愚溪[어리석은 시내]’, ‘囚山[간힌 산]’ 등의 좋지 않은 이름으로 자신의 거처하는 곳을 불렀다. 蘇軾은 자신이 귀양살이를 한 곳의 일대를 두루 유람하며 「赤壁賦」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지만 그 안에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를 담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梅溪는 두 사람이 모두 천명을 제대로 안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반면 도연명의 경우 전원으로 돌아가 즐기는 삶 자체가 바로 ‘樂天知命’의 군자적 삶이라고 하였다. 梅溪 자신은 평소에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도연명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천명을 알고 즐기는 삶을 지향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梅溪가 ‘樂天知命’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공자가 말한 ‘仁者不憂, 勇者不懼’의 氣概와 맹자가 강조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극히 크고 굳센 ‘浩然之氣’를 기르는 것이다. ‘仁者不憂, 勇者不懼’의 기개와 ‘浩然之氣’를 함양하여 곤궁한 처지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비로소 ‘樂天知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梅溪의 삶의 지향을 형상화한 작품은 유배객으로서의 울울한 정회를 토로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다음의 시에서 그 단초를 엿볼 수 있다.

「次淳夫韻³⁴⁾」

於登高舒嘯之時, 臨流賦詩之間. <中略> 昔柳子厚居零陵, 苦厭山水, 名溪爲愚, 指山爲囚, 皆加以惡名, 初非知命者也. 蘇子瞻謫黃岡, 遍武昌寒溪諸山, 赤壁二賦, 橫絕古今, 而終未免有遺世慕仙之意, 亦未可謂之知命也. 惟夫學君子不憂不懼之術, 養浩然至大至剛之氣, 然後爲能不變窮厄之際, 可言知命矣. 余慕陶學孔孟者也, 竊有志於此, 久矣. 抑不知余之樂於斯臺者 其庶幾知命者乎.”

34) 『梅溪集』卷3, p.323.

남으로 돌아와 또다시 배타고 쫓겨 가니
 한유가 영남으로 쫓겨 간 것과는 같지 않네
 瘴氣 품은 비와 구름에 병든 몸 근심하고
 맛있는 음식에 군침을 흘리네.
 일장춘몽과 같은 영욕은 오래 전에 쓸어버렸으니
 벼슬길에 나아가고 그치는 것은 하늘의 뜻에 내맡기네.
 길 떠나는 기러기처럼 강호에 떠도는데
 벼와 기장은 본성에 따라 가을 돌아오니 익어가네.

南歸又逐下瀧舡	不似韓公嶺外遷
瘴雨蜚雲愁病骨	金齏玉膾落饑涎
久拚寵辱同春夢	自信行藏付老天
飄泊江湖同旅雁	稻粱隨分趁秋前

韓愈는 좌천되었다가 중앙으로 복귀한 후 그 뒤에 다시 좌천이 되었던 것이니, 解配되지 않고 단지 移配가 된 梅溪의 상황과는 다른 경우이다. 자신의 처지를 그러한 韓愈와 비교하는 가운데 解配가 아닌 移配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드러난다. 이어 남방의 나쁜 기운에 병든 몸이 더욱 나빠질 것을 염려하고, 맛있는 음식을 탐하게 된다고 하며 유배생활에서 생기는 인간의 자연스런 정회를 말하였다. 이렇듯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한낱 봄날 꿈과 같은 인간사의 영욕에 대한 미련은 오래전에 다 버렸으니 정치현실에의 참여여부도 천명에 내맡길 수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梅溪가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天命을 알아서 주어진 제 분수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을날 본성에 맞게 익어가는 벼와 기장에 시선이 머문 것이다. 제 본성대로 자연스럽게 생명을 영위하는 것이 바로 梅溪가 지향하는 樂天知命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살필 것은 梅溪의 이러한 ‘樂天知命’적 삶에 대한 지향이 과연 그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아마 당대 戊午士禍에 연루되어 고초를 겪은 다른 新進士人들에게도 나

타나는 보편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再思堂 李蘊(?~1504)은 무오사화 때 평안도 郭山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지은 「述志賦」에서 “사물이 한결같지 않은 것은 저마다 운명이 있기 때문이네. 아래로는 사람을 닮하지 않고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네. 천명을 깨닫고 즐거워함 [樂天知命]은 진실로 공자가 주역을 해석하신 말씀이네. 옛 성현의 중도의 가르침에 따라 내 처지 편히 여기며 살아가리라.³⁵⁾”고 하여 역시 ‘樂天知命’을 언급했다. 그러나 다음의 작품을 통해 李蘊이 지향한 ‘樂天知命’은 梅溪의 그것과는 다소 달랐음을 파악할 수 있다.

아! 곤궁함과 현달함은 운명의 소관이고, 부귀는 하늘이 주시는 것이며, 사람이 때를 만나고 못 만남은 시운에 달려 있고, 도를 닦고 닦지 못함은 내가 할 탓이다. 이런 까닭에 군자는 저들에게 달려 있는 人爵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의 天爵을 구하며, 하늘에 달려 있는 부귀를 구하지 않고 내 마음의 性命을 다하며, 곤궁함과 현달함을 가지고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부귀로써 그 절조를 변하지 않는다. 저들이 그의 작위로써 하면 나는 나의 仁으로써 하고 저들이 그의 부유함으로써 하면 나는 나의 義로써 하면 되니, 내가 저들에게 무슨 놀릴 것이 있겠는가? 그저 나의 마음을 다할 뿐이다. 부귀를 뜯구름처럼 보고 높은 벼슬을 진흙탕처럼 여기며 산수의 즐거움을 실컷 누려서 仁과 智의 작용을 다 발휘하며 動과 靜의 기틀을 마음대로 부리고 만물 조화의 근원에 통달하여 천지 사이에 노닐고 한 세상 위를 유유히 노닌다면, 이것을 窮하다고 할 것인가? 達하다고 할 것인가?³⁶⁾

35) 李蘊, 『再思堂集』(민족문화추진회 『韓國文集叢刊』16을 텍스트로 하였다.) 卷1, 「述志賦」, p.661, “物之不齊, 有命存焉. 下不尤人, 上不怨天. 樂天知命, 固夫子之彖辭. 依前聖之節中, 安所遇而若茲.”

36) 李蘊, 『再思堂集』 卷1, 「間竹亭記」, p.666, “嗟呼! 窮達有命, 富貴在天, 人之遇不遇, 時也, 道之修不修, 在己. 是故, 君子不求在彼之人爵, 而求吾心之天爵, 不求在天之富貴, 而盡吾心之性命, 不以窮達而易其心, 不以富貴而貳其操. 彼以其爵, 我以吾仁, 彼以其富, 我以吾義, 吾何慊於彼哉? 盡吾心而已. 浮雲富貴, 泥塗軒冕, 窮山水之樂, 盡仁智之用, 專動靜之機. 達萬化之原, 俯仰乾坤之內, 逍遙一世之上, 則可謂窮乎, 可謂達乎?”

유배지에서 지낼 때 친구인 朴而經의 부탁을 받고 지은 기문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樂天知命’을 언급하고 있으나 주목할 것은 바로 부귀를 뜯구름처럼 보고 높은 벼슬을 진흙탕처럼 여기며 세상 위를 유유히 노닐겠다는 것이다. 李穡은 자신의 이상과 어긋난 속세의 모든 것을 부질없는 것, 흙탕물처럼 더러운 것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단절함으로써 산수 속에서 자신의 仁智를 함양하여 주어진 命대로 살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³⁷⁾ 이것이 바로 梅溪가 어떤 궁곤한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不憂不懼의 氣概’를 함양하며 그것을 통해 樂天知命하고자 했던 것과 변별되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修己’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되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 것이다.

梅溪와 再思堂의 경우를 비교해서 볼 때, 이 외에 당대에 비슷한 처지에 놓인 신진사인들의 삶의 지향은 이처럼 실천적 윤리에 성실했던 儒者로서 근본적으로 ‘修己’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되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IV. 梅溪 流配期 작품의 특징과 그 의미

이상에서 5년 여 동안의 유배시기에 창작된 梅溪의 작품을 살펴보았다. 梅溪는 成宗朝 新進士人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이상 세계를 꿈꾸며 그것이 현실의 정치에서 구현되기를 희망하였던 인물이다. 그러나 戊午士禍로 인해 그러한 梅溪의 정치적 이상은 좌절되었다. 유배시기 작품 곳곳에서 실의로 인한 좌절감, 자괴감 등을 엿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연유에서이다. 그러나 유배기 작품 속에는 유배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樂天知命하며 군자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梅溪의 의지도 살펴볼 수 있었다. 유배객으로서의 鬱鬱한 情懷를 표출함과 동시에 樂天知

37) 鄭景柱는 李穡의 이러한 지향을 ‘泥塗軒冕’의 樂天知命이라고 하였다. 앞의 책, pp.238~240

命의 삶을 지향했던 점을 통해 유가적 도리의 실천에 충실하고자 했던 梅溪의 유자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梅溪의 유자로서의 삶의 지향을 살필 수 있는 점이 바로 梅溪의 유배기 작품이 지니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梅溪의 유배기 작품에 형상화된 情懷의 양상은 당대 戊午士禍에 연루되어 고초를 겪은 다른 新進士들에게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한 개인이 자신이 놓여있는 사회와 문화의 전반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사유하고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梅溪의 유배기 작품에 형상화된 情懷와 정신 지향이 동시대 다른 新進士人の 그것과 비교하여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再思堂 李蘊과의 비교를 통해서 매우 소략하게 언급하는 데에 그쳤다. 再思堂 외에 鄭希良, 李宗準, 李胄, 朴漢柱, 姜景敍 등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던 인물 가운데 문집이 남아 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추후 보다 면밀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梅溪의 삶과 문학이 지니는 특징적인 가치를 보다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當代 新進士人들 각각의 정신 지향과 문학적 성향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들의 다양한 면모를 종합적으로 考究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參考 文獻>

- 金駟孫, 『濯纓集』(『韓國文集叢刊』17), 民族文化推進黨.
金宗直, 『佔畢齋集』(『韓國文集叢刊』12), 民族文化推進黨.
李肯翊, 『練藜室記述』
李龜, 『再思堂集』(『韓國文集叢刊』16), 民族文化推進黨.
曹偉, 『梅溪集』(『韓國文集叢刊』16), 民族文化推進黨.
『朝鮮王朝實錄』
- 민족문화연구소편, 『濯纓 金駟孫의 문학과 사상』,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8.
呂運弼, 「曹偉論」, 『한국한시작가연구3』, 태학사, 1998, pp.331~359.
李東宰, 『梅溪 曹偉의 삶과 문학』, 보고서, 2004.
李秉休, 『朝鮮前期 士林派의 現實認識과 對應』, 一潮閣, 1999.
李義康, 「梅溪 曹偉 漢詩의 문예미학적 성취」, 『한문학보』17집, 우리한문학회, 2007, pp.239~274.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엮음, 『점필재 김종직과 그의 젊은 제자들』, 지식과 교양, 2011.
鄭景柱, 『成宗朝 新進士類의 文學世界』, 法仁文化社, 1993.

Abstract

*The affect and meaning expressed in the works of exile by MaeGye(梅溪) JohUi(曹偉)
/ Kim, Jin Kyung**

MaeGye JohUi(1454~1503) was a member of the new scholar group in the SeongJong dynasty. He achieved fame due to his fine literature and became an active politician in the central political arena. However, he was exiled because he was accused in the Muo-Sahwa in the charge on his editing the collection of his teacher Jeompiljae's works. While he lived at a place of exile, his ardent patriotic sentiment made him get sick and die.

At that time, being forced into exile meant the frustration of a will to realize their ideal in the political reality. Under such a situation, it is natural for their works to contain desperate emotion of frustrated individuals. Therefore, close examination of the affect expressed in MaeGye's works in the period of his exile may provide a solid base for sound and fair understanding of his life and purpose.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MaeGye JohUi's life and purpose,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affect expressed in his works during his exile. In addition, the present study aimed at providing a foundation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ife and literary world of Early Neo-Confucian Literati through the examination of MaeGye JohUi's life and purpose.

MaeGye tried to abstain from mentioning on current political events during the 5 years of exile. Thus, most of his works written during the exile expressed his depressed feelings resulted from the forced separation from the world rather than critical comments on political events or social conditions. However, his

* Lecturer of Korea University / yeshanmoon@hanmail.net

other works expressed his will to lead a life of man of virtue in accordance with the mandate of Heaven even under such extreme circumstances as exile. Through his works, we can recognize his aspect not only as an exile but also as a Confucian scholar who tried hard to fulfill the Confucian duties. And this is the reason why MaeGye's works of exile matters.

Further discussion will be needed to elaborat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affect and purpose from MaeGye's works of exile in comparison with those of his contemporary scholars. In turn, it would be able to pave the way for better understanding of his humane qualities and literary world.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assist in examining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new literati of the time from a more specific and comprehensive perspective.

【Key words】 JohUi, works of exile, Muo-Sahwa, new literati, patriotic sentiment, mandate of heaven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일 : 11월 28일, 게재확정일 : 12월 7일